

다 가진 남자

김 려중

“어떻게 지냈어? 언제 술 한 잔 해야지?”

한 때 둘도 없는 사이였으나, 고교 졸업 후 10년이나 연락이 없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학창시절 낯 두껍기로 유명했던 녀석이였기에, 전화 한 통으로 시간을 접으며 달려온 그의 살가움을 유난스럽다고 느끼지 못했다. 동창회 주소록에서 내 연락처를 발견했다던 그는, 마침 내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 볼 일이 있으니 퇴근 후 술이나 한 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다. 순수하던 시절의 친구를 만날 생각에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소주 서너 잔이 오가고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 몇 토막을 나누자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시간의 벽은 금세 허물어졌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친구는 졸업 후 몇 년 간 수십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작년부터 아버지 사업을 돕는 중이라고 했다.

“나도 너 같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부모님한테 떳떳했을 텐데 말이야.”

친구가 술기운에 불과해진 얼굴로 푸념하자, 내 어깨는 슬며시 으쓱해졌다. 끝 모르고 이어지는 불경기 탓인지, 안정성이 담보된 공공기관의 직원인 나는 종종 주변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식의 부러움을 사곤 했다. 그럼에도,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5년이 넘자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원인모를 매너리즘이 내 일상을 채우고 있던 터였다.

“어차피 직장생활이야 다 똑같지 뭐. 힘들긴 해도 너처럼 사업하는 친구들은 꿈이 있잖아.”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푸념을 이어갔다. 다목적 면장갑을 생산하는 아버지의 공장에 첫 출근 할 때만 해도 의욕이 넘쳤지만, 납품처인 대기업의 횡포,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와 매출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일들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너무 힘겹다는 것이었다. 특히 외상으로 제품을 가져간 후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날이 계속되자,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일어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친구는 고개를 숙여 허영게 드러난 정수리를 내보이며 말했다.
“머리카락 다 빠지기 전에 장가는 가야할 텐데. 아참!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진작 들었어. 못 가서 미안하고. 늦었지만 축하한다.”
“괜찮아. 난 결혼 안한 네가 훨씬 부럽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다, 지옥!”
“그러냐. 하하하.”

학창시절, 공부도,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늘 부러움을 샀던 녀석의 칭찬 타이었을까. 그 날 나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자리를 옮겨 마신 술이 과했는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즈음에서야 우리는 술집을 나왔다. 친구는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라며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넸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는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

“여보!”
다음날 아침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나를 깨웠다. 게슴츠레한 눈을 부비고 일어나 바라본 아내의 양 손에는 어젯밤 친구가 건넨 종이 가방과 10만 원 권 수표 몇 장이 들려있었다. 나는 얼른 손을 내밀어 돈을 빼앗은 뒤, 허리춤에 감추며 말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야.”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핑계로 수표의 정체를 둘러댔지만, 평소 돈을 남편보다 더 반겼던 아내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출근 후 나는 그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젯밤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었지만 달리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별거 아니야 인마. 어제 술값 네가 냈잖아. 오늘 어디 가서 해장이나 해.”
“어디서 파는 해장국이 30만원씩이나 하냐. 그리고 2차는 네가 냈잖아.”
“같이 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그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또 통화하자.”

녀석은 급히 전화를 끊었고 나는 몇 차례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씹씹이가 일반 직장인들과는 차원

이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내가 술값을 낼 것이라고 다짐 하면서.

친구로부터 다시 전화가 온 것은 일주일쯤 후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한 한편 불안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수십 번 생각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다.”

그의 부탁은 간단했다.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들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언제 공장을 닫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 회사의 전산망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당시는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이었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전이었다. 공공기관의 말단직원인 나는, 청탁은 남의 나라 이야기 속에서나 존재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물건 값을 치르지 않아 공장직원 수십 명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는 식의 어설픈 정의감도 가졌던 듯하다.

나는 거리낌 없이 회사 전산망에 친구가 부탁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입력했고, 채무자들의 주소, 전화번호, 근무이력 등을 힘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휴대 전화로 문자를 넣어 주말에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수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서 친구와의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여보, 그 돈은 당신 옷 사는데 써도 괜찮아.”

냄비에서 국을 떠 내 앞에 내밀던 아내는 두 눈을 이쪽저쪽으로 몇 번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러나 공돈이 생긴 것에 대해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기뻐하지는 않았다. 내가 아는 아내답지 않았다.

*

며칠이 지나 친구와 약속했던 장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문자 하나가

왔다. 문자는 편지처럼 길었고, 아내로부터 온 것이었다.

「여보, 우리 연애시절 기억나? 당신이 취업 준비하느라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시절 말이야. 당신은 늘 후줄근한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를 만났었지.

남들처럼 비싼 음식점을 간다거나 여행계획을 세우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

그때 당신 참 많이 원망했었지만.....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 당신은 꿈이 있었고, 나는 그런 당신을 바라보는 게 좋았거든.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남자가 집도 한 칸 마련 못한다고 구박했었는데, 그때도 많이 속상했었지? 결혼하고도 내 친구들 들먹이면서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즐랐을 때도 그랬을 테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난 당신이 자랑스러웠어. 돈이 좀 없으면 어때. 항상 당신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매력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늘 사고 싶은 옷 안 사준다고 투정부리던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뭣하지만, 진심이야.

돈은 당신 지갑에 넣어 두었어. 꺼름칙한 돈으로 옷 살 바에야 당신의 몇몇한 아내로 남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문자를 읽는 동안 내 귓불은 핫핫하게 달아올랐다. 결혼 후 사회생활도 하지 않던 아내가 나보다 훨씬 생각이 깊다고 생각해서였다. 아내를 때로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 여겼던 나 자신이 한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친구와 만나 아내의 생각을 전하며 돈을 돌려주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친구는 오히려 무리한 부탁을 한 자신의 생각이 짧았노라고 말해주었다. 소

주병을 들고 씨익 웃던 친구는 내 앞에 놓인 잔을 채우며 말했다.

“좋은 직장에, 속 깊은 마누라까지! 다 가진 남자네, 넌.”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잔을 입에 털어 넣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를 생각했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인가에 감사했다.